



제목	정교회의 예배이콘에 대한 한국 개신교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한국실천신학회 (신학과 실천 제56호)
발행일	2017. 9. 30.
저자	김명실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37-73
ISBN 또는 ISSN	1229-7917

내용 요약

이 논문은 정교회의 이콘 논쟁의 역사적 과정과 그와 관련된 신학적 담론들을 고찰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이 논문의 목적은 종교개혁 전통과 청교도 전통의 영향으로 이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대다수 개신교 교회들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저자는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인 동형론적 이미지들이 언어적으로 묘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인들이 이콘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는, 이콘 논쟁 과정에서 성경해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 때문이라고 본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고찰하여 이콘 논쟁의 발단과 과정을 논의한다. 그 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총주교와 황제에게 보낸 교황의 응답, 제 7차 에큐메니칼 공의회 조항들 속에서 발견되는 754년 공의회의 이콘에 대한 정의들, 콘스탄티노플의 총주교인 니케포로스에 의해 종이에 보존된 815년 공의회의 정의들, 제 7차 에큐메니칼 공의회 조항들, 그리고 정교회 지도자들의 글들이다. 저자는 정교회가 이콘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기독교신앙을 전수하고자 했던 선교적, 목회적 정황을 개신교인들에게 이해하도록 초대한다. 그러한 이해를 통해 개신교인들이 이콘에 대한 이질감과 편견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는 이콘 논쟁의 쟁점주제인 이콘과 우상, 원이미지와 모사이미지, 문자와 이미지에 대한 담론들을 소개한다. 저자는, 이콘이 그것이 표상하는 것의 본질이 아니라 상기하는 매개체에 불과하며,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앞에 특별한 예를 갖추는 것이 이콘 공경이라고 한다. 저자는 정교회의 예배이콘 사용을 우상이라고 비판하는 개신교인들에게 비판을 멈추도록 요청한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식의 차이를 인식의 대상의 차이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